광주 아파트 청약열기 계약으로 이어질까

혁신도시 중흥·광주 중흥동 영무예다음 1순위 마감

실수요자·투자자 몰려 경쟁률 치열…실계약률 주목

광주권 아파트 분양시장이 청약열기로 후끈 달아올랐다. 최근 분양한 단지들이 잇따라 순위 내에 일찌감치 청약이 마감되면서 열기가 실제 계약으로 이어질 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6일 중흥건설과 영무예다음 등 지역 주택건설업계에 따르면, 중흥건설이 지난달 21일 광주·전남혁신도시에 분양한 '중흥S-클래스 센트럴'은 견본주택 개소 사흘 만에 2만여명이 몰리며 일반공급 334가구 모집에 1010명이 청약해, 평균 3.02대 1의 경쟁률로 모든 주택형이 1순위 마감됐다. 103가구를 모집한 84㎡A타입은 710명이 몰리면서 최고 경쟁률인 6.89대 1을 기록했고 84㎡B타입과 72㎡도 각각 2.94대 1, 1.02대 1의 경쟁률을 보이며 1순위에 주인을 찾았다.

같은 날 영무건설이 청약에 들어갔던 광주 중흥동 영무예다음 역시 83㎡와 73㎡가 1순위에서 청약 마감되며 열기를 이어갔다. 3순위까지 갔던 77㎡은 18.2대 1로 경쟁률이 치솟으면서 청약을 마쳤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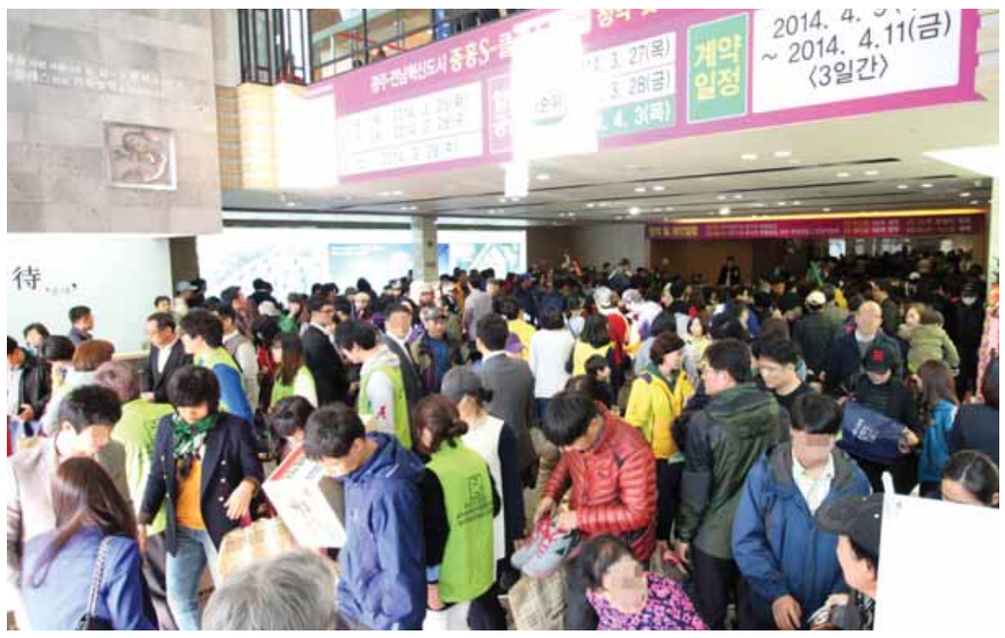
영무예다음 관계자는 "그동안 부족했던 지역 신규 분양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데다, 청약순위가 6개월이 지나면 1순위 갱신이 가능해지면서 사람들이 몰리고 있다"며 "청약한 사람들은 실수요자 절반, 투자자 절반으로 보인다"고 분위기를 설명했다.

중흥건설은 9일부터, 영무건설은 8일부터 각각 정식 계약을 시작하면서 지역 부동산업계는 실제 계약률이 얼마나 될지 주목하고 있다. 최근 호황세인 광주지역 부동산 시장 전망의 잣대가 되는데다 2분기 광주권에만 2300여가구가 신규 분양되기 때문이다. 실제 지난해 11월 분양됐던 광주 '상무SK뷰'의 경우, 6개 주택형 중 5개가 평균 15.24대 1의 높은 경쟁률로 1순위에서 청약마감을 이끌어냈으며 12월 시작된 정식계약에서 10일 만에 100% 계약을 이끌어내 지역 부동산 투자에 대한 관심을 증폭시켰다.

A주택건설업계 관계자는 "수완지구와 첨단2지구 등에 투자해 '재미'를 봤던 투자자들이 요즘 지역 분양시장마다 몰리는 추세"라며 "전매자유제인 단지의 경우 당첨만 되면 계약 후 바로 전매가 가능해 실수요자가 다수였던 지난 분양시장과 비교하면 투자자 비중이 크게 높아졌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당분간 광주권에서 분양되는 아파트는 80% 이상의 높은 계약률을 이끌어 낼 것으로 예상된다.

광주·전남혁신도시의 한 공인중개사는 "혁신도시 중흥 S클래스의 경우, 당첨 결과가 발표되자마자 인기가 비교적 낮은 1~2층마저 프리미엄이 붙었다는 소문이 나오고 있다"며 "투자자금이 몰리면서 지역 신규 분양아파트의 초기 계약률은 기대 이상의 실적을 보일 것"이라고 전망했다./임동률기자 exian@kwangju.co.kr



지난달 21일 문을 연 광주·전남공동혁신도시 '중흥 S-클래스 센트럴' 견본주택이 밀려든 사람들로 가득 차 있다. 〈중흥건설 제공〉

보해소주 17.5도로 낮췄다

신제품 '아홉시 반' 출시…용량은 15ml 늘려

보해(대표이사 유철근)가 주류 업계 최초로 도수를 17.5도로 낮추는 대신 용량을 15ml 늘린 375ml의 신제품 소주, '아홉시반'을 출시한다.

보해는 최상의 맛과 부드러운 목넘김, 역취 해소 등을 위해 연구한 결과, 도수가 낮으면서도 소주의 맛을 가장 잘 느낄 수 있는 도수가 17.5도라는 결론에 따라 신제품의 도수를 이에 맞췄다고 6일 밝혔다.

보통 360ml인 소주용량도 375ml로 늘렸다. 경기불황에 따른 서민 경제를 고려하고, 도수 인하로 인해 줄어드는 원가 역시 가능한 한 소비자들에게 돌려준다는 취지에서다. 소주의 도수 파괴는 지속되어 왔지만 용량을 늘린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다. 용량은 늘었지만 출고가는 962.90원으로, 보해가 보유하고 있는 다른 소주제품들과 동일하다.

신제품 '아홉시반'은 디자인도 획기적이다. 기존의 보편적인 녹색 병을 버리고 '조지아 그린' 컬러를 사용, 보는 미감(美感)뿐 아니라 혀끝의 미감(味感)까지 고려했다. 또, 병목에서 내려오는 어깨 부분은 부드러운 곡선으로 디자인해 획일화된 소주 제품들과 차별화를 시도했다.

'아홉시반'은 '진짜 이야기가 시작되는 상징적 의미의 시간'으로, 언제 어디서나 소주 '아홉시반'이 놓인 곳에서는 소중한 사람들과 진짜 이야기가 시작된다는 뜻을 담고 있다. 라벨에는 시계의 9시 30분이 '인사하는 사람'의 모습으로 디자인됐다.

제조과정에도 심혈을 기울였다. '아홉시반'은 특허받은 '고품질 증류원액 제조 공법'을 적용시켜 소비자 기호에 맞게 향미를 조절하여 소주의 품질을 향상시켰으며, 주조용수에 녹아 있는 나트륨마저 제거해 깔끔한 맛을 십분 살렸다. 제품 원수도 전라도 노령산맥에 위치한 약수의 본고장 장성읍 영천리의 지하 253m 청정 석간수(바위틈에서 나오는 샘물)를 사용했으며, 고급 보드카에 사용되는 최고 품질의 네덜란드산 활성탄으로 정제해 깨끗함을 더했다.

/홍행기기자 redplane@kwangju.co.kr

작년 국내 도급 166위…광주 5대 건설사

남광건설 법정관리 신청

관급공사 수익성 하락

계열사 심각한 자금난

어음 없어 부도 피할 듯

지난 4일 법원에 법인회생절차(법정관리)를 신청한 남광건설은 시공능력평가액 1000억원이 넘는 광주지역 5대 건설사 가운데 한 곳이다. 광주에서 시평액 1000억원 이상의 중견업체가 법정관리를 신청한 것은 2009년 3월 삼능건설에 이어 5년 만의 일이다.

남광건설의 시평액은 지난해 기준 1130억원으로, 국내 도급순위 166위다. 면허지역인 광주에서는 호반건설(1조7152억, 24위), ㈜서령개발(1323억, 144위), ㈜모아종합건설(1322억, 145위), 혜림건설 ㈜(1175억, 160위)에 이어 5위다.

1970년 8월 설립된 남광건설은 토목과 건축, 환경플랜트 사업이 주력이었으며 1990년대 초반엔 조경 분야로 사업을 확장했다. 그동안 토목공사를 비롯, 서구청 신청사, 세계 김치연구소, 광주 새 야구장, 광주비엔날레 전시관, 광주밀리오레, 광주기독병원, 하수종말처리장 위생매립장 건립 등을 주도하거나 공동 참여했다.

주로 관급공사에 치중했으며 현재도 광주시 5·18 아카이브 공사와 소촌산단 외곽도로 확장공사 등 계열사 포함 5건을 진행하고 있다.

법정관리를 신청함에 따라 인가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계열사는 물론 공동 도급사와 하도급 업체들이 당분간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우려된다. 남광건설의 계열사는 태웅건설, 우용건설, 청운건설 등 3개사가 있으며 이들 업체는 최근 심각한 자금난을 겪어온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남광건설이 어음을 쓰지 않고 당좌거래도 하지 않아 부도에 직면하는 상황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법원은 조만간 채무자인 남광건설에 대한 심문과 현장 검증을 거친 뒤 법정관리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법원은 1~3개월 이내에 법정관리 합당성 여부를 심의하며 기각할 경우 해당 기업은 파산 절차를 밟거나 항고, 재항고할 수 있다.

광주시건설협회 관계자는 6일 "뜻밖의 일이라 깊은 사정은 자세히 알지 못한다"며 "관급공사의 수익성이 예전같지 않아 업체들의 이익감소에 따른 운영난이 원인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광주시는 6일 대응방안을 내고, 공사 품질관리와 적기시공을 위해 공사관리관 등의 지도 및 감독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임동률기자 exian@kwangju.co.kr

신보 호남본부 올 1조원 이상 보증 공급

신용보증기금 호남영업본부(본부장 홍운기)가 올해 호남지역 보증 공급액을 1조원 규모 이상으로 잡았다고 6일 밝혔다.

신용보증기금 호남영업본부에 따르면 유동성 확대를 통한 중소기업의 지속적 성장과 경기회복을 위해 올해 신규보증 공급액의 절반 수준인 5500억원을 상반기중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중소기업 중에서도 신성장동력산업, 창업기업, 수출기업 등에 집중한다. 공인된 기술과 특허권 등을 보유한 지식기반기업과 스마트융유합보증(107억)도 활성화한다는 방침이다. 또 중소기업이 회사채 발행을 통해 금융시장에서 직접 자금을 조달하도록 해주는 유동화 회사보증에도 1500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밖에 중소기업 경영안정 지원을 위한 매출채권보험 인수규모도 늘려 9400억원의 신용보험을 인수할 방침이다.

한편 신용보증기금은 창업촉진과 성공창업 견인을 위해 창업전에 보증지원 규모를 미리 심사한 후, 창업즉시 보증서를 발급해 주는 '예비창업자 창업보증'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로또복권 (제 592회)

당첨번호						2등보너스 숫자
2	5	6	13	28	44	43

등 위		당첨금(원)	당첨자수
1	6개 숫자 일치	2,356,381,688	6
2	5개숫자+보너스 숫자일치	84,156,489	28
3	5개 숫자 일치	1,675,948	1,406
4	4개 숫자 일치	50,000	75,519
5	3개 숫자 일치	5,000	1,284,347

〈지면 사정으로 이번 주 주간증시 전망은 쉽니다.〉

지난 3일 효성 직원들이 서울지역 협력업체 실무자와 관악산을 올라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효성 제공〉

효성 동반성장 협력업체 상반기 간담회

73개 협력사 초청 산행

효성은 최근 협력업체를 초청, 상반기 협력사 간담회를 가졌다고 6일 밝혔다.

효성은 지난 주 포스코티엠씨, 티씨티, 동남석유공업 등 73개 협력업체 관계자와 서울 관악산, 창원 비음산, 부산 가덕도 연대봉에서 동반산행을 통해 애로사항 및 건의사항을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간담회에 참여한 업체들은 효성 중공업PG(Performance Group, 사업 부문)가 제조하는 초고압변압기, 차단기 등에 부품 및 원자재를 공급하는 협력업체들이다.

효성은 2008년부터 매년 상·하반기 2회에 걸쳐 100여개 협력사가 참여하는 동반성장 협력사 간담회를 실시하고 있다. /임동률기자 exian@